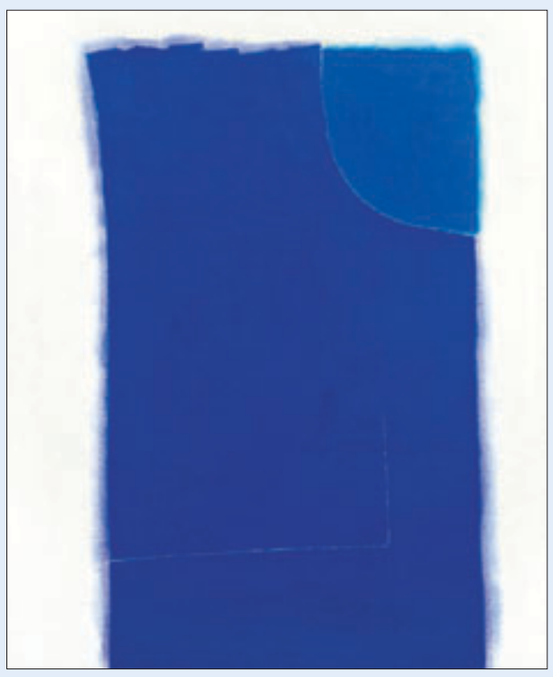
청색 하나로 펼치는 교감의 미학

윤양호 35회 초대 개인전 'DANSAEKHWA'
3월 1일~4월 30일, 서울 갤러리 비선재



'아는 것을 버리다' 200×250㎝



'아는 것을 버리다' 162×130㎝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청색 하나로 선(禪)의 세계를 그린 전시회가 열린다. 예술을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로 생각하고, 선(禪)의 세계를 현대미술로 표현해 온 윤양호 화가의 35번 째 초대개인전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갤러리 비선재에서 열린다.

"첫째, 수행의 미학이다. 출가자에게 수행이 기본이듯이 나에게도 수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 수행은 인식의 확장이고, 그 인식을 통하여 자연과 교감하며 영혼과 소통한다.

둘째,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사라진다.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른 사상과 철학, 문화로 인하여 서로 다르다고 인식돼 왔다.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고자 하였다.

셋째, 교감의 미학이다. 우리는 복잡다단한 현대생활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 내가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서로 공감하는 것'이다. 안다고 하는 생각을 놓으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혼란스럽지 않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감은 아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다." – 작가의 노트 중에서.

그 동안 단색화로 자신의 미학을 추구해온 윤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대형의 청색 그림들을 선보인다. 윤 화백은 수행의 미학, 동서양의 구분 소멸, 교감의 미학을 통해 미술의 현대적 맥락을 따라왔다. 윤 화백의 이번 작업은 위의 세 가지 요소를 자신만의 '청색'으로 발현한 교감의 미학이다.

윤양호가 처음으로 단색에 관심을 가진 때는 1994년으로 흰 광목 천에 검정색 원을 그린 연작을 제작할 때이다. 사진을 통해 본 바로는 벽에 7점(180x180cm)의 같은 크기의 작품이 걸려 있고 바닥의 중앙에 한 점이 놓여 있다. 이것이 윤양호의 최초의 단색화 작품이다.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색으로 제작한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청색 계열의 단색화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윤 화백은 자신이 사용하는 청색에 대한 참조물로 이브 클랭의 작품에 대해 언급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이브 클랭의 청색 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가 추구했던 정신이 '허(虛 · void)'에 대한 탐색이었음에 주목했다. 이는 그가 이브 클랭의 발명품인 IKB(안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그의 정신을 참고하여 '빈 것(空)'의 개념을 자신의 선수행과 연결시켜 작품화한 것 등 자신의 작화 행위에 대한 변(辨)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하에 배태된 관념적 구분을 완화시킴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가 선 수행이 인식의 확장이며 영혼의 소통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럴진대 그의 영혼은 IKB 물감의 발명자인 이브 클랭과 소통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공개된 작품은 또 관객과 소통을 이루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 교감의 미학은 관객 참여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더욱 타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윤양호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작품은 대형의 청색 그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작품과 관객 간의 교감과 소통, 그리고 나아가서는 치유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단색화(Dansaekhwa)가 서양 미술사와 다소 겹치는 대목이 있다면 말레비치나 이브 클랭을 비롯한 작가들이 추구한 '정신성'이다. 그러나 그것마저 한국의 단색파(Dansaekpa) 작가들이 추구한 것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이브 클랭은 허공을 탐색하기 위해서 몸을 통해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반면, 한국의 전기 단색파 작가들은 금욕이라는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수행성을 강조했다.

윤양호가 작품 제작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 역시 동양회화적 미학과 수행임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는 90년대 중반에 이미 이러한 실험을 숱하게 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물과 언어에 기반을 둔 개념적 요소는 점차 제거되고 반복적 행위에 의한 정신성이 단색에 스며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처음에는 검정색에 집중하다가 뒤로 갈수록 청, 적, 금색 등 제한적인 색에 몰입하게 된 것은 색이 지닌 정신의 환기 기능에 주목하면서부터이다. 특히 다년간 청색에 몰두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청색이 지닌 치유의 기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화집 출판과 동시에 대형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번 전시는 작가 개인에게 있어서 국제적 도약을 위한 무대이다. 윤 화백의 지난 28년의 화업을 중간 결산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눈 감고 바라본 물 속, 그 풍경

한경혜 '물은 생명이다' 展 3월 7~12일 인사아트스페이스



푸른꿈(Blue dream) 103×145㎝ 한지 수묵담채

물과 돌의 작가 한경혜 화가의 아홉 번째 전시회 '물은 생명이다'가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세찬 파도가 몰아치다가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바다. 거기에 서식하는 생명체들을 볼 수 있다. 또 물이 밀려들어온다. 〈중략〉 생명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곳에는 항상 물이 있었다."

– 작가의 노트에서.

한경혜, 그녀가 바라본 물속은 역시 달랐다. 물과 돌의 작가라는 라벨은 이제 그녀의 작가적 격조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가 그린 물속은 눈을 감고 바라봐야 그릴 수 있는 풍경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그린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과 '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한경혜 작가가 한국의 바닷가를 찾아다니며 그린 그림들이다. 바닷가에 정박한 그녀의 시선은 누구나 바라보는 수평선이나 위로를 위한 공간들에 홀리지 않았다. 바닷물이 해안에 다가와 멈추는 시점, 그리고 다시 밀려가고 남은 빈자리와 그로 인해 드러나는 바닥,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유심히 섬세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풍경들을 그렸다. 작가는 바다에 관한 흔하고 상투적인 이미지를 지우고, 바닥으로 내려간 한경혜의 시선으로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낯선 세계와 만난다. 작가는 그 낯선 세계를 그려나갔다. 그리하여 이번에 선보이는 작가의 그림들은 '존재'라는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 눈만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그려내려고 했다. '설명'으로 정리되는 '존재'가 아닌 '체험'으로 흡수해버린 '존재'에 대한 작가의 생각, 느낌이다. 힘겨움을 힘겨움으로 극복하며 어느 누구보다 내면에 집중했고 내면을 체험했던 작가 한경혜. 그래서 그녀의 눈은 내면을 바라보기에 최적화된 것일까. 그녀의 눈은 모든 것들의 내면으로, 내면으로 향한다.

그래서일까. 그림만 보면 사실 무엇을 그렸는지 쉽게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는 이들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한다. 분명 실재하는 바다풍경이지만 동시에 기이한 장면이자 낯선 풍경이고 이미지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익숙하고 관습적인 시선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선물처럼 받아보게 된다. 서양의 일러스트를 보는 듯한 그녀의 수묵은 삶의 비밀을, 우주의 신비를 어려운 암호로 그리고 있는 듯하다. 형식면에서도 그녀의 그림은 이야기할 것이 많을 듯하다. 조심스러운 먹선 위에 말고 투명한 채색. 한경혜식으로 형상화한 이미지들은 신비스러움을 자아낸다.

박재완 기자

'동아시아 호랑이 미술' 展 온라인 전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현재 열리고 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기념 국제특별전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韓國 · 日本 · 中國' 전시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2월 23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전시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전시감상과, 가상 전시실(VR) 체험 서비스를 통해 호랑이 작품을 전 세계인들이 관람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 온라인 전시 서비스는 구글 아트 앤 컬처와 협업하여 선보이는 것으로, 구글 아트카메라로 촬영한 4작품을 포함한 총 13점의 작품이 공개된다. 아트카메라는 구글 아트 앤 컬처가 제공하는 고도의 촬영기술로, 기가픽셀 (10억 화소에 달하는 이미지) 이미지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세세한 디테일까지 담아낸다. 또, 구글 아트 앤 컬처 사이트에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클라우드 프로세싱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초고화질 이미지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와 작품은 구글 아트 앤 컬처 사이트(https://www.google.com/culturalinstitute)와 모바일 앱(Google Arts & Culture)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을 치세요!
인터넷동영상강좌 평생교육원 대통인.com
온라인 인터넷 동영상강의보기 사이트
수강상담 전화
1661-6551
(24시간 접수중)
인터넷 동영상 수강 과목

명리학	구성학	기문둔갑
매화역수	천문지리풍수	수상
육효	육임	주역
타로	물상명리	풍수지리
성명학	수맥	팔체질
꿈해몽	생활풍수	사자소학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공부해서 좋다.
• 역학의 모든 과목을 실력있는 강사에게 배운다.
• 누구나 저비용으로 반복하며 전 과목을 공부한다.
• 누구나 공부하면 빠른시일내 사업에 나설 수 있다.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학술원을 치세요!
오프라인 인터넷 강의 알리미 사이트 천국공개강의 대통인학술원.com
오프라인 인터넷 공개강의보기 사이트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상담 전화
1833-9551
(24시간 접수 중)
현재 오프라인 수강생모집 과목

과 목	강사명	개강일	수강시간	강의시간	월수강료	비 고
구 성 학	박창원	3월13일(화)	14-17시	3개월	20만원	교재제공
자연물상 사주명리	지정도	3월14일(수)	13-15시 16-18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유니버셜 타 로	차두성	3월14일(수)	10-12시 14-16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주 역 점	장호철	3월15일(목)	14-16시 19-21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3월18일(일)	12-14시			
마르세유 정통타로	조미정	3월16일(금)	14-16시 17-19시	2개월	20만원	교재제공

•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대통인학술원을 치시고 들어가셔서 공개강의 공지를 자세히 보세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22번지 흥도빌딩 3층 301호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30m)
(자가용 → 영등포구 구의회옆 당산공영주차장 이용)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 40,800원
(무료배송)

희담석 稀潭石 (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2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하고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